

日本語起源論과 韓日語 比較에 대하여 (I)

—限界性を 中心으로—

李 庸 周

(國語教育科)

I. 序 言

최근 日本에서는 日本民族의 起源과 國家의 形成, 그리고 日本語의 起源·系統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 중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은 日本民族과 日本語의 起源에 관한 논의에 韓民族과 韓語⁽¹⁾가 깊숙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日本語起源에 관한 논의의 특징은 대강 다음과 같다.

- ① 民族의 歷史와 言語의 歷史는 一體라는 觀點에서, 日本民族과 日本語의 歷史를 追究한다.
- ② 言語學 專攻이 아닌 많은 人士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 ③ 이 分野에 관련된, 信賴할 수 없는 論著가 많이 출간되고 있다.
- ④ 北方 알타이系 諸言語, 南方 오스트로·네시아⁽²⁾系 諸言語와의 對應關係를 찾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⑤ 數的으로 보아 南方系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큰 것 같다.⁽³⁾
- ⑥ 韓日 兩 民族과 韓日 兩 言語의 關係에 대한 研究에 참여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이 韓國語에 정통한 것 같지 않다.

言語는 사람과 함께 탄생했다. 아니, 사람이 탄생한 연후에 그들에 의해서 발명된 생활 도구의 하나가 言語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언어는 인간과 함께 이동하고 擴散되었다. 인간이 멸망한다면 언어도 따라서 소멸될 것이다. 그러므로 言語의 歷史를 논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民族의 역사와 諸般 文化를 確認·確證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比較言語學의 方法에 의해서 밝혀진 兩 言語의 相互 交涉의 經緯도 民族의 歷史에 관련된 隣接科學들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서 비로소 최종적인 斷定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隣接科學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韓日 兩 言語의 起源과 系統의 同一 與否를 증명하고, 그 상호 영향의 有無를 밝히는 主役은 어디까지나 兩 言語의 比較研究를

(1) 韓半島의 韓族의 言語라는 意味로 韓語라고 한다. 高麗의 言語도 李氏朝鮮의 言語도 그리고 舊 韓末이나 現代의 韓國語도 모두 統括하는 用語로 사용한다.

(2) 오스트로·폴리네시아語, 오스트로·네시아語, 말레이·폴리네시아語 등등 南方系 言語를 呼稱하는 말이 많이 있거니와 이를 總稱하는 意味로 사용한다.

(3) 北方系에 관한 研究보다 南方系에 관한 研究가 더 진척했다는 意味는 아니다. 質的인 것을 가리킨 말도 아니다.

담당할 言語學이다. 그런데 現在 日本에서는, 言語學을 모르는 다른 專攻 分野의 사람들로서, 韓日 兩 言語의 比較를 통해서 日本語의 起源과 兩 言語의 相互 關係를 究明하려고 努力하는 이가 많다. 이런 現象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⁴⁾

日本語의 起源·系統을 밝히기 위해서 比較研究되는 主要 言語는 北方 알타이系の 諸言語와 韓語, 그리고 南方 오스트로·네시아系の 諸言語다. 韓語를 따로 떼어서 알타이語와 별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韓語의 系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韓國에서는 韓語의 系統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北方 알타이系 여러 言語에만 시선이 돌려졌던 것과는 달리, 日本에서 日本語의 系統을 밝히려는 사람들은 北方 알타이系 諸言語와 함께 南方 오스트로·네시아系 諸言語도 주시해왔다. 南北 양쪽의 여러 言語와의 對應關係를 구명하고 民族의 歷史를 傍證으로 내세워 日本語의 北方系 또는 南方系를 주장해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日本語가 北方 알타이系 諸語와 南方 오스트로·네시아系와의 混合言語라고 하는 견해다.

日本の 학자들은 日本語의 起源·系統을 추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高句麗나 韓族의 言語에서까지도 南方系要素가 發見된다 하며, 三韓地方에서는 알타이系 言語가 南下하기 전, 南方系 言語가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보기도 한다. 더구나 ‘日本祖語’ 또는 ‘原始日本語’가 三韓地方의 어디선가 形成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는 것 등은 주목할 만하다.⁽⁵⁾

日本語의 文法體系가 알타이系 諸言語의 그것과 類似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나, 日本語가 알타이系 언어라고 보기에는 語彙에 알타이系的 것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

南方系 언어와의 비교에서는 文法體系의 類似를 찾을 수 없고, 또, 한 때는 語彙에도 南方系的의 要素가 거의 없다고 보기도 했으나, 最近에 와서는 日本語 語彙의 殆半이 南方系라고 하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日本語가 ‘南方系 言語’라고 하는 견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바야흐로 南方系 起源說 불을 이루고 있다.

日本語의 文法體系가 北方 알타이系 諸言語의 그것과 크게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日本語가 完全히 南方系 言語라고 하는 믿을 만한 研究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日本語가 北方 南方의 混合言語라고 하는 의견과 混合言語라고 하는 것은 存在할 수 없고, 文法體系가 알타이系的의 것과 크게 유사하므로 알타이系 言語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다. 다만, 지금까지의 言語學의 상식으로는, 語彙의 要素는 借用되기 쉽고, 放置해 두기만 하면 原則적으로 數的인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語彙 要素의 부분적인 共通性·類似性은 言語系統의 同異를 결정하는 유력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비해서 音韻體系나 文法體系는 다른

(4) 두 言語의 比較研究는 比較言語學의 領域이다. 比較方法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슷한 音素 하나만 있으면 곧 무슨 親族關係나 借用關係가 있다고 생각하는 誤謬를 범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發表되는 경우 讀者들에게 混亂을 줄 염려도 있다.

(5) 是認하는 것도 否認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無理다. 眞實을 밝히기 위한 努力이 要請될 뿐이다.

言語와의 접촉에 의해서도 용이하게 변하지 않으므로 言語의 系統을 결정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最近, 한 言語의 語彙가 特定 語族의 그것과 절대적인 共通 내지는 類似를 보일 때, 그것은, 그 言語의 系統을 분간하는 基準이 될 수 있다는 見解가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의 歸趨가 주목된다.

日本語의 起源・系統을 연구하는 경우 예외 없이 韓民族과 韓語가 學論된다. 韓國은 地理的으로 日本과 隣接해 있고 歷史的으로 韓日 兩民族이 너무도 깊숙히 相互 關聯되어 있으며, 言語 또한 同系일 可能性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는 몇 가지 點만으로도 충분히 이유 있는 일이다. 韓日 兩國語가 매우 유사성이 큰 言語라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도, 이들의 起源・系統이 밝혀질 수는 없다. 韓日 兩言語의 關係는 이들에 얽힌 北方系 南方系⁽⁶⁾의 여러가지 복잡한 要因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동안은 간단하게 밝혀질 수 없을 것이다.

지금 日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빈번히 거론되지만, 그 중에는 너무 간단하게 내려진 結論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이다.

韓日 兩言語를 比較하는 過程에서 誤謬를 犯하는 일이 적지 않다. 語形을 比較하여 對應關係를 밝히는 過程에서 채택되는 語形이 잘못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형편에서는 比較方法에 잘못이 없어도, 거기서 歸納的으로 導出되는 音韻法則 같은 것이 옳게 세워지는 어려울 것이다.

日本에서는 近來에 와서 韓國語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大學에서도 韓國語 科가 새로 생기거나 正規 教科로 韓國語를 가르치는 곳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나 韓日語의 共時的인 研究는 불 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日本에서의 韓國語 研究는 대체로 文獻을 中心으로 한 中世語研究 아니면 古代語에 관한 것이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日本語의 起源・系統을 연구하는 過程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韓國語의 歷史에 관한 考察이다. 그 중에는 正確한 比較言語學的인 方法으로 兩國語의 比較研究를 하는 着實한 業績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더욱 많다. 韓語가 日本語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先入見을 가지고, 研究에 臨하는 데서 오는 잘못들도 꽤 있다. 이런 태도는 우선적으로 버려져야 한다. 原則的으로 冷靜하고 客觀性 있는 資料에 의해서만 判斷되어야 한다.

本稿는 지금 日本에서, 古代史의 研究와 함께 봄을 이르고 있는 日本語의 起源・系統과 韓日 兩言語의 關係에 대한 논의를 分析하고 앞으로의 展望을 생각하는 一環으로 준비된 것이다. 특히 日本語의 成立에 韓語가 어떻게 關係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留意해서 考察하기로 한다.

(6) 韓國語에는 南方 要素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하겠으나 日本語에는 南方 要素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意見이 一般化되고 있다.

II. 研究의 方法과 基盤

韓日 兩 言語의 比較를 통해서 系統을 밝히고 起源을 追跡하기 위해서는 先行되어야 할 몇가지 문제들이 있다.⁽⁷⁾

1. 韓日 兩 言語의 記述

우선 가능한 한도에서 韓日 兩 言語의 共時·通時를 망라한 記述이 先行되어야 한다. 그런데 韓國語의 경우나 日本語의 경우나 다 같이 共時的인 記述조차도 充分히 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도 本格的인 文法書가 몇 권 나오지 않았다. 그 內容에 있어서도 앞으로 再檢討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初創期의 文法研究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外國에서 유행하면서 발달하는 文法理論이나 方法을 받아 들여, 研究를 繼續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韓國語를 記述·說明하는 데 適合한 것으로 修正되어 土着化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의문이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더 많다. 이 말은 결코 歐美에서 도입된 言語學의 理論이나 方法이 우리에게 아무런 寄與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직도 韓國語는 充分히 記述·說明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Saussure의 構造言語學이나 Bloomfield를 中心으로 한 美國의 記述言語學, 그리고 Chomsky 이후의 變形·生成文法이 모두 큰 貢獻을 하면서도 韓國語 記述을 위한 決定的인 裝置가 되는 데까지는 發展되지 못했다. 日本語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본다. 이는 人間의 두뇌가 빈약하다기 보다는, 言語現象이 그만큼 복잡하고 非論理的이라는 것을 暗示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쨌든 우리는 수 많은 學者들이 總力을 기울여서도 自身들의 母國語 하나를 充分히 記述·說明하는 方法을 찾지 못했다. 現在의 業績도 대부분은, 그때 그때의 臨時的인 結論이며 漸定的인 成果일 뿐이다. 矛盾과 缺陷을 들어내지 않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複數言語를 比較·對照해서 그 對應關係를 밝히고 系統의 同異를 究明하기 위해서는 우선 對象이 되는 複數 言語에 精通해야 하고 그들을 모두 기술·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理想이다. 그러나 自身の 母國語도 충분히 기술·설명하지 못하는 形편에서 한 個人이 母國語가 아닌, 다른 複數 言語를 완벽하게 기술·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無理다. 實際의 比較研究에서 몇가지 타입의 誤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韓日語 比較에서 語形을 잘못 채택한 例들이다. 出典은 밝히지 않는다.

① ‘漢字의 意味에 해당되는 韓國語+讀音’을 韓國語로 誤認한 것.

hi(火) : pilfwa, pulfwa [pil(불), pul(불)]

(7) 여기서 언급하는 그 어느것 보다는 더 重要的 것은 ‘言語資料’다. 이것이 없으면 確實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 kasasagi(鶺鴒) : kac'icak [kac'i(가치)]
- ② 動詞의 基本形과 活用形을 比較한 것.
- haru(貼子) : pallil [pari-(바르-)]
- tsukiru(盡きる) : cheukeul(死) [chuk-(죽-)]
- karu(離) : kal(行) [ka-(가-)]
- poru(掘) : p'el(뚫) [p'e-(꼭-)]
- sameshiki, sabisshiki(淋シキ) : sim-sim han [sim-sim ha-(심심하-)]
- ③ 語幹을 잘못 잡은 것.
- nuru, neru(寢ル) : nu(臥) [nup-(눅-)]
- nu(寢) : nu(臥) [nup-/nuβ-(눅-/눔-)]
- nöru(告) : nil(닐) [niri-/nirē-(니르-/니르-)]
- noru(告ル) : niläl(니를) [同上]
- kati(徒歩, 歩行) : köl [köt-(걸-)]
- tataku(叩く) : teutal [tutiri-, tutari-(두드리-, 두드리-)]
- tsureru(蓮ル) : talyü(同伴する) [tari-(다리-)]
- ④ 中世國語 表記를 無視한 것.
- pone(骨) : ?pyö [spyə(뼈-)]
- kë←ka(食) : ?kii [pski/pskii(喰/喰)]
- usiro(後) : tui [tuyh(뒤ㅎ)]
- namida(淚) : nunmil [nun-s-mil(눈물)]
- ⑤ 其 他
- idure(誰) : nui←*nuri [nu(누)]
- kaga(影) : keri [kirimøy, kirimøy, kirimcøy(그르매, 그리매, 그림채)]
- mura(村) : mææ(里) [mæzer(마을)]
- puti(淵) : mot [mos(못)]
- uchi(打ち) : chhil(打つ) [名詞 : 動詞의 冠形詞形]
- müma(馬) : mæl [말(馬)은 원래 몽고어]

이러한 誤謬는 外國語를 다루는 경우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일이거나와 서구인이나 日本人이 韓國語를 다룬 논문·저서에 이와 같은 例가 많다.

要컨대, 複數 言語를 比較하는 경우 그 두 言語에 정통한 사람만이 잘못을 주릴 수 있다. 그리고 比較研究는 對象이 되는 두 言語가 共時的으로 通時的으로 完璧에 가깝게 記述될수록 有利하다.

2. 比較言語學

두 言語의 起源이나 系統을 밝히는 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比較研究다. 다른 學問의 도움을 받아서 研究가 더욱 빨리 進行되고, 또 研究 結果를 確認하는 데 여러가지 隣接科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言語의 문제를 專門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主役이 될 수는 없다. 다음 引用文은 比較研究의 方法과 필요성을 시사하는 한

토막의 글이다.

……가장 확실한 比較研究는 語彙의 全般的인 比較로부터 音韻의 對應을 分明히 하고, 音韻法則을 歸納하며, 그것을 基盤으로 文法的 諸要素의 對應을 밝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形態素의 對應을 背景으로 한 音韻의 對應과 形態의 對應과가 言語 間의 親族關係의 決定的 證據가 되는 것이다. (服部 1959² p. 15)

그러나 이와 같은 諸要件에 符合되는 韓日語의 比較研究는 아직 없다. 뿐만 아니라 그 可能性에 관한 展望도 밝지는 못하다. 18世紀 初부터 東西 學者, 특히 日本人 學者 多數에 의해서 比較研究가 試圖되었고, 同系說이 주장되어 왔으며, 그 方法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同系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 決定的인 研究는 아직 없다. 그러나 위에서 引用한 바 있는 服部氏의 말과 같이, 兩言語의 기원이나 계통을 구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比較研究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3. 韓日 兩民族의 起源

言語間의 相互 交涉, 또는 어떤 한 言語가 다른 한 言語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兩言語의 起源·系統을 아는 것은 물론,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 民族의 起源과 歷史를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韓日語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關係를 具體적이고 詳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原則적으로 兩民族의 歷史를 追跡하는 일이 중요시된다.

日本語의 起源을 알기 위해서 大野(1957¹ 1960⁶)는 自身の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제까지의 日本의 言語學에서는 狹義의 言語學의인 資料에만 의존해서 日本語의 系統 問題를 생각해 왔다. 그것은 學問의 순수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틀림없이 하나의 입장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方法만으로는 아무래도 分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때, 그 原因을 찾고 研究의 方向을 判斷하기 위해서는 言語學뿐만 아니라 사람의 學問 즉 人類學이나 文化史의 學問 즉 考古學이나 더욱 넓게 民族學이라고 하는, 關係가 깊은 學問과 共同으로, 日本語나 日本人의 起源과 成立을 생각해 가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의 問題와 文化의 問題에, 나는 不斷히 注目해 갈 것이다. 言語는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며, 그 누구인가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만들어, 먹고, 生活을 營爲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와 같은 것의 複合體로서의 人間生活을 捕捉하지 않으면, 日本語의 起源과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本書에서는, 人類學의인 것, 考古學의인 것에도 꽤 뜻을 늘렸다. 이것은 모두 言語의 問題에 結付되는 것이기 때문에 考慮해서 읽어 나아가 주기를 바란다. (1960⁶ p. 6)

좀더 具體적으로 보면 大野氏는, 土器 地名, 人種의 特徵(斑點, 味盲, 指紋, 血液型) 祝祭 등등 여러가지 分野의 資料를 日本語의 起源을 探索하는 基盤의 一部로 삼고 있다.⁽⁸⁾

(8) 大野氏만의 方法은 아니며 그렇게 하는 것이 確實한 결론을 얻는 研究方向일 것이다. 다만 言語資料의 比較研究가 가장 重要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서 服部氏(1959¹ 1959²)는

日本語의 系統을 研究하기 위하여, 日本人의 起源, 言語 以外の 日本 文化의 起源 등이 밝혀져 있으면, 考察이 편해지고 有利하게 展開될 것이다. 이런 意味로, 大野氏가 人類學・考古學・民族學 등을 공부한 것은 옳다. 그러나 言語의 문제에 관한 限은 最後的・決定的 發言權은 言語學에 있다. 다른 分野의 諸 研究는 參考가 되는 데 不遇하다. 다른 分野에 있어서의 現象의 説明에 符合시키기 위해서 言語의 分野에서 無理를 해서는 아니된다. 大野氏의 著書를 보아 가노라면, 전반적으로 보아, 言語 以外の 일에 좀 한눈을 판 것 같은 印象을 받는다. (1959² p. 234)

와 같이 批判하고 있다. 大野氏에 대한 이러한 批判은 다음과 같이 言語學的인 方法에도 잘못이 있다는 부분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다음으로, 言語學的으로 보아 가장 重要한 點에 言及하고자 한다. 그것은 ‘音韻法則’의 概念이 大野氏와 나와는 서로 다른 듯하다는 것이다. 大野氏는 日本語와 朝鮮語 사이의 ‘音韻對應의 法則에 의해서 支持되는’ ‘單語의 對應’……中略……의 例를 求하려고 하여 176페이지에서 180페이지에 걸쳐서 兩言語 間의 ‘音則’을 몇 개인가 들고 있다. 그러나 그 ‘音則’은 아직 ‘音韻法則’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1959² p. 236)

이와 같이 批判하고 그 例로서 單語가 兩 言語에 있어서 서로 對應하는 것을 證明하려던 子音뿐 아니라 母音도 法則에 따라서 對應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1959, p. 236-7)

日本語의 起源과 系統을 日本民族의 起源과 관련시키려고 하는 立場에 대하여 服部氏(1959²)는 거듭 批判하고 있다.

日本語의 系統과 日本人의 起源과를 混同해서는 안된다. 日本民族과 같은 大 民族이 言語를 바꾼다는 일은 쉽게 있을 수 없으나 작은 種族・民族이 自己의 言語를 버리고 隣接한 有力한 民族의 言語를 말하게 되는 일은 가끔 있다. 그러므로, 言語의 문제와 體質人類學的인 문제나 기타 文化의 문제와는 理論上 一旦 分離해서 考慮되지 않으면 안된다. 日本語의 系統의 研究에 있어서도 言語學이 最終的 決定權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人類學・考古學・民族學 등의 研究 成果는 考慮가 되는 데 不遇하다. 다른 分野의 일에 정신이 팔려서 言語學的인 考察에 있어서 無理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959² p. 240)

이와 같은 服部氏의 비판에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大野氏가 考古學・人類學 기타 文化의 문제를, 日本語의 起源을 探索하는 데 끌어드린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服部氏가 지적하듯이 大野氏의 ‘音則’이 두 言語의 語彙의 對應關係를 밝힐 수 있는 ‘音韻法則’으로 不足하다는 그것은 문제가 된다.

言語의 構造가 類似하고 그 記述의 各 階層에 있어서의 對應關係가 言語學的으로 證明되는 경우에도 比較・對照되는 兩 言語의 起源과 系統, 나아가서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영향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兩 言語를 사용하는 民族의 起源과 歷史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點에서 大野氏가 日本語의 起源과 成立을 밝히는 手段 내지는

根據로서 言語外的의 여러 分野의 學問의 成果에도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4. 隣接科學

服部氏가 大野氏를 비판하여, 너무 言語外的인 分野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였거니와, 필자의 생각으로는 오늘날의 不充分한 比較言語學의 方法으로만은 韓日語의 系統研究·比較研究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설사 言語의 對應關係만은 比較言語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確認하여 두 言語 사이의 歷史的 關係를 밝히기 위해서는 人類와 관련된 여러 學問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言語의 歷史는 人間(民族)의 역사와 一體이기 때문이다.

日本語를 繼續해서 過去로 過去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限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一定한 곳까지 遡及해 올라가면, 드디어 日本語가 日本語가 아니라고 하는 段階에 도달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 물음을 二者擇一해야 할 것으로 性急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日本語를 社會 및 文化의 歷史의 諸 關聯으로 부터 分離한 形態로, 그와 같은 意味로, 다만 言語를 그것만으로서——完結된 體系로서——抽象한 形態로 그 傳統을 過去로 遡及해 올라가는 限, 이 傳統의 실(絲)은 茫漠한 過去의 彼岸으로, 어디까지나 限없이 더듬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리라. —資料의 有無를 묻지 않는 限은—. ……그러나, 다른 一面에서, 다른 역사적 사실과의 연관에서 생각해 본다면, 무어라해도 日本人이 있으므로서의 日本語다. 여기서, 言語의 觀點에서 日本民族의 문제가 떠오른다. 즉, 日本民族이 成立된 瞬間이 日本語 成立의 瞬間이다. 이 瞬間까지 밖에 日本語의 歷史는 遡及될 수 없다. (平凡社, 1963¹, 1978² p.248)

차근차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文章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읽어 낼 수 있다.

- ① 資料의 有無를 묻지 않는 限, 言語의 역사는 한 없이 소급될 수 있다.
- ② (다른 一面에서는) 日本民族 成立의 瞬間이 日本語 成立의 瞬間이며, 日本語의 역사는 이 순간까지만 遡及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言語의 역사는 그것을 사용하는 民族의 역사와의 關聯에서만 確實해질 수 있다. 같은 場所에서 같은 사람들이 사용해도 日本民族이 成立되기 전에는 그것을 日本語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은 充分히 이해할 수 있다. 日本語라는 名稱이 붙는 限, 日本民族이나 日本國의 背景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그런 名稱이 붙지 않는 言語 그 自體는 日本民族이나 國家와는 關係 없이 存在했을 것이고 그 起源은 다시 遡及해서 찾아야 할 것이다.

言語는 人間이 享有하는 文化의 하나다. 그것은 人間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言語의 起源을 찾으려면 人間の 起源까지도 소급해야 한다. 다만 한 民族의 言語에 局限한다면 그 民族의 成立까지 遡及하면 될 것이다. 韓日 兩 言語의 系統을 더듬어서 두 民族이 成立되는 時期까지만 소급한다 해도 우리는 資料가 없어서 손을 댈 수가 없을 것이

다. 그러므로 言語學 以外的, 人類에 관한 學問이 必要하게 된다.

Ⅲ. 研究의 限界

1. 韓國語의 起源

韓國語의 起源에 관한 論議가 本格的으로 提起된 일은 거의 없다. 장차에 있어서도 쉽게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韓國語가 알타이系 諸言語에 속한다고 하는 假說이 常識化했을 뿐이다. 그것도 確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韓國語의 原故郷을 想像하며 아득한 옛날을 꿈꾸게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韓國語가 알타이語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斷定할 만큼 比較言語學의 研究가 되어 있지도 않다. 이런 狀況에서 아무런 直接的인 資料도 없는 古代로 소급하여 韓國語의 起源을 論議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역사적으로 보아, 그때 그때의, 韓國語의 全般的인 構造가 대강이라도 파악되는 것은 訓民正音이 創製된 15世紀以後다. 그 이전의 言語에 관해서는 比較研究에 의해서 部分的으로 再構된 假說을 세울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 民族은 單一한 言語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單一性이 原初로부터 있었던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鴨綠江 豆滿江 以南의 半島에서 單一民族과 單一言語가 自生하여 지금까지 그 순수성을 지켜 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 어떤 人種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와 살게 되었느냐에 의해서 言語가 복잡하게 뒤섞였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韓族語 아닌 言語가 韓族語로 바뀌는 그 過程을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韓國語의 起源이나 系統에 관한 研究는 서력 紀元 前後까지 遡及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나마도 어떤 確證을 가진 연구 결과가 아니라 假說에 不過한 것이다. 그 당시의 高句麗語와 韓族語가 어떤 것이었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來歷 또한 어떤 것이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判斷에 필요한 資料가 거의 없다.

이런 難關을 放置한 채, 手中에 있는 資料를 가지고 알타이系 諸語와 比較하여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는 것이다. 그 결과 現代의 韓國語는, 韓族의 言語가 中心이 되고 그 底層에 高句麗語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高句麗語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고, 韓族의 言語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적다. 또 高句麗語와 韓族語 사이의 類似點과 差異點에 대해서나 기타 相互關係에 대해서는 더구나 잘 모른다. 高句麗語가 現代 韓國語의 底層을 이루고 있다 하나 과연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들은 民族의 역사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려질 날이 올 것으로 알거니와, 이런 역경 속에서도, 꾸준한 研究로 마음과 같은 몇 가지를 推測하게 하고 있다.

① 弁韓에서 加耶로 이어지는 言語가 이웃한 新羅語와 달랐고, 北方의 高句麗語와 유사한 要素를 가졌었다.

- ② 弁韓—加耶語는 夫餘系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뒤에 新羅語에 同化되었다.
- ③ 高句麗語와 新羅語는 親族關係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 ④ 百濟語는 馬韓語의 계속으로 高句麗語의 上層을 가진다. 支配階級の 言語와 被支配階級の 言語가 달랐을 가능성을 示唆하는 例가 있다.
- ⑤ 新羅語와 百濟語는 매우 가까웠다.

高句麗語에 있었다는 數詞 *mir ‘密’ (三), *iic ‘于次’ (五), *nanən ‘難隱’ (七), *tak ‘德’ (十) 등은 新羅語에서도 一部 발견되고, 日本語의 三五七十을 의미하는 數詞와는 一致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에 對立的인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學者들의 해석은 반드시 一致하지 않는다.

알타이語 사이에서 數詞의 一致는 드문 것인데 高句麗語와 日本語 사이에서만 많은 一致가 보이는 것은 兩言語의 分岐가 별로 오래지 않음을 示唆하는 것이며, 高句麗語와 日本語가 모두 *d>n의 變化를 보여줌으로써 相互 親近性을 들어내고 있다는 國內의 立場에 대해, 이들 數詞의 一部가 南方系 要素임을 주장하는 日本 學者가 있다. 前者의 경우는 韓日 兩國語를 알타이系의 一分派로 보는 것이며, 後者の 경우는 알타이系와 南方系의 要素가 混合된 것이 日本語라고 보는 立場에서, 고구려와 신라의 언어에도 南方系 要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混合說을 주장하는 村山 七郎氏의 見解를 소개한다.⁽⁹⁾

高句麗語에서는 ‘三’을 密 mil이라고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高句麗의 三峴縣(新羅 景德王은 그것을 三嶺縣으로 改名했음)은 高句麗語로 密(mil)波兮라 했습니다. 密 mil이 ‘三’, 波兮 pakei는 波衣 paioi와 같이 中期朝鮮語 pahoi ‘巖’에 對應하고 궁극적으로는 오—스트로네시아 祖語 *batu ‘石, 巖石’과 同源……

문제가 되는 것은, 密 mil ‘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高句麗語만의 數詞는 아니었습니다. 新羅에서도 ‘三’이라는 數詞는 密 mil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三國史記” 地理志에 新羅 地名 密城郡은 본래 推火郡이라 했다고 되어 있는데 推火라고 하는 것은 訓으로 mil pil이며 이것은 密城 mil pil이라고도 表現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三’은 mil이었던 것이 分明합니다. ……이 mil은 中期朝鮮語 數詞 nil|kup ‘七’(現代語 il|kop)과 同源입니다. 이 수사의 kop은 中期語의 kop (現代語 kkop-) (數를 헤아리기 위해서 손가락을 꼽는)과 同源으로……nil-은 ‘三’임에 틀림 없읍니다. 즉 朝鮮語의 ‘七’은 ‘三·곱다’라는 表現일 것입니다. ……

나의 아주 空想的인 생각을 말해두기로 하겠습니다. ……古代朝鮮語 mil ‘三’(高句麗語 新羅語에 共通)은 *nil로 부터의 變化이며, 본래는 語末이 母音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母音은 *n-을 *m-으로 바꾼것과 무었인가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母音은 圓脣母音 o나 u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의 假定은 이 語가 前鼻音化形이라는 것입니다. 出發形으로서 *ntilo(u)를 設定합니다. ‘三’을 나타내는 오—스트로네시아 祖語 *talu가 想起됩니다. 그 特殊한 發達로서 *tilu가 있었을 것입니다. 臺灣의 (……)ciugal<*tilu|gal ‘三’, (……)tilu(1874年 資料), ……泉井久之助先生(“比較言語學研究”)에 의하면, 자바 東方의 巒巴語에도 tilu, 마살語도 ts’ilu이며, 그밖에도 *tilu

(9) 좀 길지만 이런 견해는 일단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要所를 引用해 둔다. 색다른 한 考案이기는 하지만 모든 學問에서 그리 하듯이 無批判的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로부터의 發達形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스트로네시아祖形 *talu '三'의 異形 *tilu를 設定, 그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發達을 推定하는 것입니다.

*tilu '三' 그 前鼻音化形 *ntilu > *nilu > nil (中期朝鮮語 nil|kup '七'에 남는다.) 또 다른 한편으로 *nilu > mil (高句麗語, 新羅語의 數詞密 mil '三') = 日本語 mi < *mil '三'. 이와같이 보아 오면 南方의 新羅語뿐 아니라, 北方의 高句麗語에도 오-스트로네시아語의 影響이 미쳤다고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高句麗語를 순수한 南동그스系 言語로 볼 수는 到底히 없습니다.

이러한 見解의 차이는 南方 오-스트로·네시아系 諸語에 대한 態度 如何와 기타 研究 方向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것이다. 國內에서는 南方系 言語에 대해서 冷淡하고, 이웃 日本에서는 北方系 못지 않게 南方系에 視線을 돌리고 있다. 日本 學者가 自己들의 言語에 南方系 要素가 많다 하여 混合言語說을 들고 나오긴, 또는 南方語說을 들고 나오긴, 그것은 自由이고 拘礙 받을 것이 없지만, 韓國語에 南方系 要素가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대로 넘길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의 言語와 관련된 것이므로 잘못 됐으면 고치기 위해서, 또 우리의 立場에 잘못이 없으면 그것을 貫徹하기 위해서, 이들의 南方系 要素 여부를 調査해야 할 것이다.

日本 學者의 주장이 옳지 않다 해도, 이처럼 相違한 見解가 나온다면 그것은 아직도 當時 言語에 대한 우리의 充分하고 確實한 研究 結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多少나마 間接적인 資料를 남기고 있는 高句麗·三韓 時代의 言語만 해도 만만하게 다룰 만한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三韓과 高句麗의 時代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그 以前의 時代로 비약해서 言語의 역사를 追究할 수는 없다. 당면한 문제로서 이 三國時代의 言語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2. 日本語의 起源

明治 以後 日本語의 起源에 관한 見解는 다음과 같이 分類된다.

① 北方系 起源說

- a. 알타이系, 또는 우랄·알타이系
- b. 韓日語 同系論

② 南方系 起源說

- a. 말레이·폴리네시아(또는 오-스트로·아시아系)
- b. 티베트·버-마系

③ 印歐語 關聯說

④ 其他

(平凡社 1963¹, 1978², p. 160)

이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北方系說과 南方系說이다.

北方系說은 日本民族이 北方 아시아 大陸에서 韓半島 기타를 거쳐서 건너갔다는 것을 주장하는 考古學者 歷史學者들의 주장과 符合된다. 우랄語族의 成立으로 우랄·알타이系 云云하는 分類法은 없어졌고, 다소의 論難이 있기는 하나, 알타이系라는 分類方法으로 바뀌었다.⁽¹⁰⁾

알타이 語族이라고 하는 것은……土耳其 諸語, 蒙古 諸語, 滿洲語를 포함하는 通古斯 諸語에 朝鮮語를 포함시키게 된다. 이들 言語는, 印歐語가 ‘語族’(Sprachfamilie)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意味로 하나의 語族을 形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어떤지, 學界에서는 크게 討議가 버려져 아직 明確한 結論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平凡社 1978² p. 188)

그러나 알타이 語族이 成立될 수 있다고 보는 學者들이나, 그것을 비판하는 學者들이나 모두 이른바 알타이系 諸言語로 看做되는 이들 諸言語가 많은 點에서 類似하고 共通의 語를 가졌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見解를 취하든지 이들 諸言語가 그 構造上 形態上 많은 유사점과 相當한 數의 共通單語——借用關係인가, 또는 祖語로부터의 共通 遺産인가는 別個의 問題로 하고——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쪽이나 意見이 一致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印歐 諸語와 같은 ‘語族’을 形成한다는 意味로가 아니라, 그들이 서로 密接한 關係를 보인다는 意味에서 이들 諸言語를 임시로 ‘알타이諸語’라 부르기로 하자.

韓日 兩言語는 形態의 유사와 共通의 單語를 가질 뿐 아니라, 構造上 공통되는 것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들이 同系일 蓋然性이 크다고 보며,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日本語보다 韓國語가 알타이系 言語에 가까와지고 있다고 한다.

藤岡勝二(1908)는 우랄·알타이語가 가지는 特徵으로 14個 項目을 들고 그 중 13개 項目에서 日本語가 알타이語와 一致된다고 보고 日本語의 우랄·알타이系 言語說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新村出氏(1911, 1935)는 우랄·알타이說을 인정은 하나 그 關係는 매우 疎遠하다고 했다. 알타이 比較言語學의 創始者라 불리고 韓國에서도 잘 알려진 Ramstedt(1924, 1926a, 1926b, 1928)는 日本語가, 韓國語 또는 알타이語와 緊密한 關係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Ramstedt의 影響을 받은 金田一京助(1938)는 日本語가(韓國語도) 原始알타이語에서 分岐되었음을 말하면서 그 關係는 아주 微微한 것으로 본다. 服部氏(1959)는 日本語(韓國語도)가 알타이 諸語와 親族 關係에 있을 蓋然性은 있으나 아직 그것이 說明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韓日 兩言語에 대하여 이른바 ‘水深測量’을 하고 그 결과

(10) 한때는 더 범위가 넓은 우랄·알타이語族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우랄 地方을 포함한 유라시아 大陸의 廣大한 地域에 分布하는 一大語族을 想定했던 것이다. 그러나 뒤에, 피노·우랄語族이, 더 나아가서 우랄語族이 形成됨에 이르러, 우랄·알타이語族이란 말은 쓰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알타이語族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一部 學者들은 알타이語族 成立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아직 結論이 나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이들 數字를 엄밀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여러 意味에서 不可能하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것이, 兩 言語가 親族關係를 가진다고 해도 매우 옛날에 分裂한 것이라는 것(4000年前 以後에 分裂한 것일 수는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은 決코 不適當하지도 않으리라. (1959, p. 208)

와 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은 北方系說에 대하여 V.H. Labberton(1924, 1925)은 日本語가 南方系 諸 言語와 同系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村山 七郎氏(1979a, 1979b)와 같이 日本語가 北方系와 南方系の 混種語임을 주장하는 學者가 있어 學界의 注目을 끌고 있다. 村山氏는 混合言語를 인정하지 않는 服部氏의 愼重한 結論을 批判하고 水深測量의 科學的 意味에 대하여 의문을 提起하고 自信 있게 맞서고 있다.

韓日 兩 言語의 系統的 關係에 대해서는 일찍이 G.W. Aston(1879), 白鳥庫吉(1898), 기타 여러 學者들이 관심을 가지고 比較 研究해 왔다. 그들의 결론은 대강 韓日 兩 言語가 먼 親族關係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金澤氏(1910)의 ‘同祖論’은 엉뚱하다. 그는 “韓國의 言語는 我 大日本帝國의 言語와 同一 系統에 속하는 것으로 我國語의 一分派에 不過…….”云云하여 韓日 兩國의 學者들에게 批判을 받았다. 最近에 와서 大野氏(1960)도 日本語의 起源을 追究하기 위하여 韓日語를 比較하였으나 誤謬가 많이 指摘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研究態度는 注目할 만하다. 日本人 學者들이 韓日 兩 言語를 比較 研究한 結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河野氏(1971) 등의 말에서 잘 알수 있다.

日本語의 起源이 논의될 때, 반드시 朝鮮語와의 親近關係가 言及되지만, 항상 證據 不充分으로 却下되는 것이 고작이다. 그것은, 親近關係를 支持하는 데 充分한, 基礎 語彙 間의 音韻對應의 規則性이 發見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同系를 否定해 버리기에는 文이나 語의 構造의 形式的인 面이 너무 隘었다. 즉 構造形式의 一致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메꿀 資料의 乖離 때문에 同系라고도 同系가 아니라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現象이다. (大野 1971, p. 312)

나로서는 日鮮 兩語의 關係는 지금까지 決코 간단히 確證도 할 수 없고 否定해 버리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新村 1935, p. 13)

語法 語彙의 一致는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根本 關係의 存在는 아무래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組織的으로 立證할 수가 없다. (新村 1935, p. 20)

日本語의 起源·系統도 많은 學者에 의해서 舉論되었으나 韓國語의 경우보다 별로 더 進展된 것이 없는 듯하다. 다만 日本語의 경우, 日本書紀 古事記 등 古文獻이 있어 많은 資料를 가졌다는 點에서 運이 좋은 셈이지만 北方이나 南方이나 때문에 衆論이 紛紛하다.

3. 倭⁽¹¹⁾의 言語 I, 倭의 言語 II의 混合言語說에 대하여

村山氏(1979a, 1979b)는 混合言語說을 主張하여 注目을 끌고 있다. 그의 주장을 대강 소

(11) 日本 九州 博多 근처의 志賀島에서 發見된 漢의 金印에는 倭라고 되어 있다(漢委奴國王). 칼구

개 한다.

韓半島 南쪽에는 倭⁽¹²⁾가 있었다.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용한 言語를 氏は ‘倭의 言語 I’ 이라고 命名한다. ‘倭의 言語 I’은 繩文晩期나 彌生初期에 韓半島를 거쳐서 九州로 건너갔다. 그것은 對格接辭 등 通古스·滿洲語와 共通되는 特徵을 가진 알타이系의 言語이고, 九州로 건너가기 前, 韓半島에서, 이미, 多少의, 南方系 言語의 影響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것을 南島語에 의한 第一次의 影響이라고 한다. 결국 알타이語의 一派가 韓半島 南端까지 南下해서 거기서 定着해 사는 동안 南方系 言語의 影響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九州로 건너가서 거기서, 다시, 大量的 南島語要素를 吸收해서, (이것을 南島語에 의한 第二次의 影響이라 부른다.) 차차 日本祖語 또는 原始日本語로 탄생했다는 說明이다. 그는 이것을 ㄴ양스가 다른, 다음과 같은, 表現으로 정의하고 있다. (1979)

- ① 南島語 要素를 大量으로 받아들인 알타이系 言語.
- ② 알타이의 格助詞, 動詞活用, 語順을 받아들인 南島語.
- ③ 南島語를 素材로 하고 알타이의 言語를 組織原理로 한 言語.

倭의 言語 I, 倭의 言語 II의 標本(村山, 國分, 1979)을 提示하고 있는 바 그 一部를 들어 둔다.

倭語 I의 標本

名詞語幹, 形容詞語幹.

ipapo	イハオ	巖 (A)
inu	イヌ	犬
kata	カタ	固
kata	カタ	片
köi	コイ	木 (A)
kupa	クハ	<*gupa 美しい(아름답다)
kutu	クトウ	<*gutul 沓(靴)
māga	マガ	曲, 禍 (Vs)
mō		木 (Vs, mō- ‘나무가 성하다’)
muna		棟, 胸 (A)
nāmi	ナーミ	波

랜(1923)은 倭는 ‘禾(穀草)를 收穫하고 있는 女子와 같이 몸을 구부린다’는 原意를 가진다고 説明하고 있는데 村山氏는 이 倭(wa)가 원래는 ‘人’을 의미하는 普通名詞이며 이것이 種族名稱으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보면서 Ainu 기타의 實例를 들고 있다. 이런 그의 견해를 그 自身이 “상당히 空想的인 作業 假說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12) 中國의 文獻에 보이기는 하나 그 精確한 위치가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그대로 否定하기도 어렵다. 日本人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이 많으나 國內 學者들은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nā wī	ナ 地	大地
ökö	オコ	<*ögə 上 (Vs. 起ク(일어나-)의 어간)
ömö	オモ	母
sigē	シゲ	茂 (Vs 茂ル(성하다)의 어간)
sora	ソラ	空
wa re	ワレ	我
yama	ヤマ	山
yökö	<*žəgə	横 (Vs 避ク(피하다)의 어간)

動詞語幹

i-	<*i-	入ル(들다)
kaku-		圍む(에우다)
nuk-		脱ぐ(벗다)
ökö-	<*ögə	起きる(일어나다)(名詞어간에서 派生)
örö-		降(オ)る(내리다)(名詞어간에서 派生)
sə-		爲(ス)ル(하다)
yökö-	<*žəgə-	避(ヨ)く(피하다)(名詞어간에서 派生)
yörökö-	<*žərəgə	喜ぶ(기뻐하다)
yu-		行く(가다)

cf. (A)→오—스트로네시아系, Vs→動詞語幹으로도 쓰였음

文의 標本

(1)	(2)	(3)
kata ki	ipapo yori	ür'umu
固キ	巖 より	降(オ)る
(단단한)	(바위)(로부터)	(내리다)

- (1) kata+ki
- (2) ipapo|yori<*i|bapu+du|li
- (3) ör'umu<*ələ-i wu-mu<*—wu-mi

倭語 II 의 標本

(1)	(2)	(3)	(4)	(5)
take ki	wo	öpö ki	wata wö	watar'umu
猛키	男	大き	海を	渡る
			(ワタ)	
(勇猛한)	(사나이)	(큰)	(바다를)	(건너다)

(勇ましい 男が 大きい 海を 渡る—勇猛한 사나이가 큰 바다를 건너다)

(1) take|ki ‘猛き’ take<*laki=原始 인도네시아語 *laki ‘男’; -ki 修飾語를 만드는 알타이의 接辭.

(2) wo ‘男’ <*ua<*uʔaŋ=原始 인도네시아語 *uʔaŋ ‘人, 男’

(3) öpö|ki ‘大き’, öpö<*əpu=原始 인도네시아語 *ə(m)pu ‘祖父, 偉대한 것.’ -ki 는 (1) take|ki의 ki와 同.

(4) wata|wö 海(ワタ)を, (바다를) wata<*wat’əŋ=原始 모리네시아語 wasa ‘海’, 휘—지語 wasa ‘大洋’. -wö는 통구스語와 共通의 對格接辭.

倭語Ⅱ에서는 動詞活用の 方式 등이 韓語의 그것과 상당히 달랐다. 이것은 南方系 言語의 影響이라고 본다.

氏は 倭語Ⅰ과 倭語Ⅱ의 形成時期에 관해서

나는 한편으로는 研究가 充分히 進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歷史나 考古學이나 民族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年代記(chronology)의 문제는 避하고 맙니다. ‘倭의 言語Ⅰ’이 日本에 到來한 時期에 대해서도 ‘倭의 言語Ⅱ’의 成立時期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整理된 意見은 없습니다. 다만 江上波夫先生이 말씀하시는 ‘騎馬民族’이 ‘倭語Ⅰ’을 日本에 가지고 들어 왔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江上先生도 그 點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전에 ‘倭의 言語Ⅰ’은 日本에 到來해 있었을 것입니다. ‘騎馬民族’도 ‘倭의 言語Ⅰ’에 가까운 言語를 말했을 可能性은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村山氏가 말하는 ‘倭의 言語Ⅰ’을 사용하던 ‘倭’가 韓半島 南쪽에 있었다는 것은 中國의 史書에도 그런 示唆가 있고, 이것을 믿는 日本 學者들도 많이 있으나 國內 學者들은 그것을 認定하지 않는다. 그 어느쪽이 옳으냐는 앞으로의 歷史研究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村山氏가 말하는 ‘倭’와 ‘倭의 言語Ⅰ’을 그대로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日本 學者들은 韓半島의 ‘倭’의 存在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으나 國內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村山氏처럼 그것을 인정하는 立場에 선다면 그들과 이웃의 韓族과는 같은 民族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하고 또 그 곳에서 원래부터 사용되던 말이 무엇이었는데도 밝혀야 한다. 氏에 의하면 알타이·통구스적인 言語가 東北아세아로부터 南下해서 韓半島 南쪽 金海沿岸에 定着했다가 다시 九州로 渡來했다는 結果가 된다. 그렇다면 그런 言語를 사용하던 사람이 南下했을 것이고, 그들이 半島 南쪽에서 定着해 살았다면 그것은 北方 民族일 것이다. 村山氏를 비롯한 日本 學者들이 인정하는 ‘倭’는 北方의 民族인가? 원래 半島 南部에 살던 別種의 人間集團이 ‘倭’이고 거기에 北方民族이 내려와서 섞였단 말인가? 또는 두 人間集團의 混合體가 ‘倭’인가? 여러가지 疑問이 풀리지 않는다.

村山氏는 騎馬民族이 日本을 征服하기 前에 ‘倭의 言語Ⅰ’이 日本으로 건너갔다고 보고, 騎馬民族도 ‘倭의 言語Ⅰ’에 가까운 言語를 사용했을 可能性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倭의 言語 I’을 日本에 옮긴 集團과 騎馬民族이 한 民族임을 시인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韓半島 南쪽에 北方民族도 아니고, 韓族도 아닌 ‘倭’를 想定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그 言語를 韓族語나 北方系 言語와 구별해서 ‘倭의 言語 I’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數 많은 疑問이 남는다. 또 있다. 北方系 言語가 南下해서 南方系の 영향을 약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영향이란 語彙에 국한된 것이었고, 語彙에서 약간의 영향을 받은 정도를 가지고 北方系の 言語와 구별해서 ‘倭의 言語 I’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그럴바에는 차라리 北方 알타이系 言語 또는 韓語가, 日本으로 건너가서 日本祖語 내지 原始日本語가 成立되었다고 보는 편이 낫지 않은가 한다.⁽¹³⁾ 그러나 이러한 筆者의 좁은 所見도 내세워서 主張할 만한 것은 못된다. 아무런 근거 資料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大野氏(1960)의 ‘日本語起源’ 내지는 ‘日本語成立’에 관한 結論이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日本에는 繩文式時代에, 폴리네시아語族과 같은 音韻組織을 가진 南方系の 言語가 사용되었다. 彌生文化的 傳來와 함께 알타이語의인 文法體系와 母音調和를 가진 朝鮮 南部의 言語가 사용되기에 이르렀고, 그것은 北九州에서 南과 東으로 번져서, 第一次의으로는 近畿地方까지를 그 言語區域으로 했을 것이다. 머지 않아, 그것은 彌生式文化的 東쪽으로의 擴大와 함께 東部 地域에도 번져가서, 九州·四國·本州에, 奈良時代의 言語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原始日本語가 成立했을 것이다. 아마도 琉球의 諸 言語가 日本語의인 性格을 가지게 된 것도 彌生式文化的 傳播와 同時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朝鮮으로부터의 言語의 傳來는 壓倒的 多數의 人間의 渡來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言語가 가진 文法體系를 바꿀 수는 있었으나, 語彙의 몇 개인가는 바꾸지 못하고 남았다.⁽¹⁴⁾

4. 言語起源의 追跡의 遡及限界

言語의 起源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여러가지의 論議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論議에서 絶對的인 것, 確實한 것, 이런 結論이 나올 수는 없다. 이 문제는 永遠의 秘密로 남을 것인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提出된 몇 가지 起源說을 훑어보기로 한다.

人間의 言語能力이 神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宗教的 立場에서의 神授說⁽¹⁵⁾, 驚愕, 憤怒, 喜悅 등 感情의 表出로서의 音聲 또는 自然스럽게 나타나는 제스처나 顔面表情 등의 表出運動에서 人間 言語의 起源을 찾으려는 Pooh pooh說⁽¹⁶⁾, 動物의 울부짖음, 비·바

(13) 韓語가 알타이系 言語인지 아닌지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하고, 韓 地方에 알타이語가 南下해서 사용되었다면 그 以前에 어떤 言語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알아야 한다.

(14) 大野氏의 結論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알타이語를 몰고 온 사람들이 壓倒的 多數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던 言語가 가진 文法體系는 바꿀 수 있었으나 語彙의 몇 개는 바꾸지 못했다는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15) 中世 基督教界에서 널리 고려된 것이다. 이러한 神學的인 見解에 대한 반발로 ‘言語는 人間이 發明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16) 특히, 表出音聲은, 現代의 言語처럼, 象徴(symbol)으로서의 言語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

랍 소리, 천둥 소리, 물결 소리 등 自然界에서 일어나는 音響을 模倣하는 데서 言語가 비롯되었다고 하는 擬聲語 起源說인 Bow-wow說⁽¹⁷⁾, 原始的인 노래에서 言語의 起源을 찾으려는 Sing-song說⁽¹⁸⁾, 그리고 人間이 相互 接觸하는 데서 言語의 必要性이 생겼기 때문에 發生했다는 接觸說 기타 여러가지의 言語 起源說이 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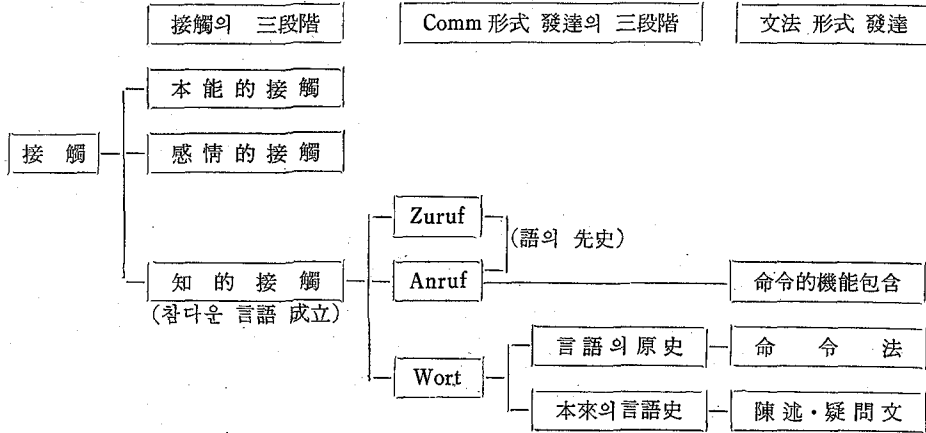
이들 여러가지 起源說 중 가장 合理的이고, 包括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接觸說이다. 이것은 既存의 많은 言語起源說을 批判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거기에 動物心理學, 兒童心理學의 成果를 참작할 뿐 아니라, 많은 言語 資料를 基礎로 한 것이다. 이 說을 要約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 ① 接觸에는 本能的인 것, 感情的인 것, 知的인 것의 三段階가 있다.
- ② 知的인 段階에서 참다운 communication이 成立된다.
- ③ Communication 形式의 發達도, 三段階로 나뉜다. Zuruf(集團을 향한 것, cry), Anruf(特定個人을 向한 것, call), Wort(語, word).
- ④ 첫째, 둘째 段階(Zuruf, Anruf)는 言語의 先史(아직 言語라고는 할 수 없는 communication)에 相當하며 셋째 段階(Wort)에서 참다운 言語가 나타난다.
- ⑤ 이 第三段階(Wort)는 다시 言語의 原史(原始的인 言語)와 本來의 言語史(現存 言語 및 文獻上으로 알려진 言語)로 區分된다.
- ⑥ 機能面에서 보면,
 - a. 言語의 先史에 있어서의 Anruf에는 이미 命令的 機能이 포함되어 있다.
 - b. 言語의 原始期에는, 이에 입각해서, 命令法이 발달했다.
- ⑦ 言語史의 初期에는 陳述, 疑問文이 나타난다.
- ⑧ Communication의 必要가 커지면서, 이 셋 以外の 文法 形式이 發達하고 곧 完成期의 言語가 된다.

만 自己의 內的인 緊張을 弛緩시키는(releasing tension) 운동에 의해서 產出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을 言語의 기원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人間言語의 시초를 感嘆詞에서 찾는다. 表出運動에 不過한 感嘆詞다.

- (17) 독일의 哲學者 數學者인 G.W. Leibniz 以來 많은 支持者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言語의 語彙에서 擬聲詞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별로 信賴할 만한 說이 아니다.
- (18) O. Jespersen이 이 說을 주장하는 代表者라고 한다. 言語學者가 이런 說을 주장했다는 점 매우 흥미 있다. 좀 더 客觀性 있고 合理的이어서 科學的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주장했더라면 한다. 그 내용은, 人類의 言語는 역사를 소급할수록 單語의 語形이 길고 概念的 意味가 빈약했다는 것을 내세워 意味가 없는 音節로 된 原始的인 '노래'에서 言語의 起源을 찾으려는 입장이다.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言語가 詩에서 타락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同軌의 것으로 생각된다. 言語는 처음부터 意思疏通을 위한 手段으로 考案된 것이 아닐지는 몰라도 言語의 本質은 그것이 目的이다. 또 '노래'의 기준을 어디다 둔 것인가?
- (19) 其他, 動物의 言語와 人間의 言語 사이에 決定的인 差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動物의 言語를 研究함으로써 人間 言語의 起源을 찾으려는 것, 集團의인 勞動時에 表出되는 音聲에서 言語의 起源을 찾으려는 Yo-he-ho說, 모든 事物이 가지는 固有의 音響에서 言語의 起源을 찾으려는 Ding-dong說 등 여러가지 說이 있고 심지어 聖書의 句節(舊約 創世紀 1-5, 2-19)에까지 關心을 가지기도 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接觸說의 長點은, 다른 說에 비해, 視野가 넓고, 言語의 本質에 立脚한 理論의 展開이고 言語의 先史에 關係서 새로운 原理를 考案한 데서 發見될 수 있다. “言語起源說에 큰 示唆을 줄 것”이라는 好評을 받고 있다.

이 接觸說을 基準으로 하여 言語의 起源에 關係 研究가 어디까지 遡及될 수 있으며, 어디까지 遡及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慾心으로는 ‘言語의 先史’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서 그 起源을 찾고 싶다. 그러나 이 地球上에는 그것을 밝힐 아무런 자료도 없다는 形편에서, 도저히 이를 수 없는 꿈이 아닐 수 없다. 좀더 時代를 낮춘다면 최소 ‘言語의 原史’까지는 올라가야 그래도 起源다운 起源을 찾을 것이 아닌가 한다.

資料의 形편이 좋은 경우에도 數千年을 遡及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니 이를 石器時代의 三 區分⁽²⁰⁾과 對照해 보면 고작 新石器時代가 아닌가 한다. 舊石器時代에 살던 사람들과 그들의 言語까지 遡及한다면 1萬年으로부터 六十萬年前까지 소급해야 하니 이는 도저히 不可能한 일이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言語의 起源을 그 原點까지 追跡하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다만 ‘韓日 兩語의 起源’의 경우처럼 한 ‘民族’과 關係된 言語의 問題라면, 그리고, 그때의 ‘起源’이란 말을 ‘成立’ 또는 ‘形成’이란 말로 바꿀 수 있다면, 民族의 成立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韓語의 起源’을 찾고 ‘日本語의 起源’을 찾는 일은 어느 程度까지 可能하다고 본다. 그래도 ‘假定, 假想, 假說’ 등의 用語를 完全히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言語起源에 關係 研究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雄辯으로 말해 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插話가 있다.

(20) 여기도 몇 개의 方法이 있으나 이즈음은 대강 셋으로 구분한다.

舊石器時代(約 60萬~1萬年前), 中石器時代(約 1萬年~8千年前), 新石器時代(約 8千年~3千年前).

佛蘭西의 ‘파리言語學會’가 設立된 것은 1866年인데, 이 有名한 學會는, 言語의 起源에 관한 論文을 一切 採擇하지 않는다는 뜻을 그 發足에 즈음하여 決議하고 있다. 오늘날도 言語의 起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言語學者 속에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동안의 經驗으로, 言語 起源의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잘 認識되어 있기 때문이며, 言語의 起源이 研究할 만한 價値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은 아니다. (平凡社 1978, p.22)